

가톨릭대 의예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6반 황지호

	국	수	영	한국사	생명과학	지구과학	입시결과
'19수능	2등급 (95%)	2등급 (90%)	1등급	1등급	1등급 (98%)	2등급 (92%)	
'20수능	1등급 (100%)	1등급 (99%)	1등급	1등급	1등급 (99%)	1등급 (98%)	'20 정시 가톨릭대 의예 합격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20학년도 수능을 봐서 가톨릭대학교 의예에 합격한 황지호입니다. 저는 강남대성학원에서의 1년 덕분에 성적을 향상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저 자신이 한층 발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에 한번 더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강남대성학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합격 수기를 작성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의 장점>

강남대성학원의 가장 큰 장점을 들자면 학생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는 수년간 수능이라는 시험을 직업으로 연구해온 분이신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기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시고, 질문도 섬세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바로 강남대성학원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모든 선생님의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의 일등공신은 바로 학원 수업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학생들을 향한 노력도 강남대성학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대성학원의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최고의 실적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학생을 가르쳐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학생들을 관리해 주십니다. 처음 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1년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시 지원 기간에는 최후의 보루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정시 지원 기간에는 학생의 정해진 점수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조언해 주시는 등 입시에 성공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제공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등 담임선생님께서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바른길을 알려주시고 도움을 손길을 내주십니다. 만약에 담임선생님의 진심 어린 관심이 없었다면 저는 고된 재수 생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저를 포함한 자연 6반 친구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정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대성학원에서 제공해주신 콘텐츠도 수능 대비를 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주 나오는 간쓸개는 하루 할당량을 꾸준히 푸니 국어의 감을 유지해주는 국어 공부의 근간이 되어주었고, 수능 직전에 받았던 고난도 과탐 해시태그 모의고사는

수능 때 어떤 난이도로 과학 시험이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멘탈을 길러줬습니다. 특히 해시태그 2750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평소에 수학이 비교적 약했던 저는 2750을 통해 비킬러 문제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수없이 하면서 계산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접해보는 동시에 실제 시험에서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킬러 문제들을 정복해 낸 결과, 수능 때 비킬러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킬러 문제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서 평소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포바이텐, 1720등 강남대성학원에서 나눠주는 좋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쌓으면 수능 고득점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남대성학원의 다른 소소한 장점으로는 일단 단일화된 학원 전용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과의 모든 것을 하나의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학원 생활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학원 건물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학생증을 통한 체계적인 출석 관리도 좋았습니다. 특히 자습시간에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 실제 수능 시험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평소에 공부를 해왔던 것이 수능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본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험생활>

재수학원에 다니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공부가 잘 안되거나 너무나 하기 싫은 시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공부하는 여느 활동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에너지를 쓰는 활동입니다. 이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는 다시 보충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수능 공부와 같은 장기전을 버텨내려면 충분한 에너지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공부를 계속하면 내용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강남대성학원 본관의 주말 자습은 토요일 세 타임, 일요일 세 타임 중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자습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저는 휴식이 필요하다 싶은 주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되, 학원을 점심시간에 가거나, 밤 10시까지 자습하는 대신에 저녁시간에 귀가를 하는 등 평소보다 주말 자습 시간을 조금 줄여줬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간단한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휴식을 취한 대신, 그다음 날에는 '전날에 쉬었으니 오늘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고, 재충전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공부는 장기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하원을 매일 자전거로 했고, 학원이 끝나고는 매일 피트니스를 다녔습니다. 피트니스를 가서는 런닝머신도 잠깐씩 뛰고, 운동 기구에서도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체력이 손실이 되지만, 적당한 신체 활동은 건강 유지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와중에 저는 1년 동안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충분한 숙면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거의 취할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숙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부 효율의 극대화와 몸 상태의 관리를 위해 하루에 최소한 7시간씩은 잠을 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교적 행복한 재수생활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은 걱정이라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수능 망할 수도 있잖아' 같은 걱정들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차라리 쉬는 것이 이득입니다. 항상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우직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태도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시간에 학원 옥상에 있던 잔디밭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재수학원의 자습시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후 수업이 끝난 후의 자습시간을 저녁시간을 기약하며 버텨낸 뒤에 마침내 저녁시간이 되어 노을빛 하늘을 옥상에서 바라볼 때 느끼는 상쾌함처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오글거린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가뜰이나 무료하고 고단한 재수생활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들로부터 얻는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면 어느새 대학 합격증을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공부법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무작정 다양한 내용과 지문과 문제들을 접해보는 소위 ‘양치기’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학교생활이나 수시 준비에 정시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현역에 비해 재수생은 정시 공부에 거의 올인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치기 공부를 실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기본적인 자세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읽어 보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외우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다양한 출제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모두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험생은 수능에 어떠한 종류의 소재, 어떠한 난이도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주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수능에 안 나온다,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다, 너무 어렵다... 등 자기가 제멋대로 만든 기준을 토대로 자신이 공부하기 싫은 내용, 풀기 싫은 문제는 그냥 버려버리는, 자기 입맛에 맞는 공부만 하는 친구들을 몇몇 봤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중에서 이번 수능을 잘 본 친구는 슬프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급박한 수능 현장에서 긴장된 상태로 제 실력을 발휘해서 100점을 맞으려면 평소에 최소 150, 200점 어치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만 비로소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내용이나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넘기기도하는 5초라도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출제자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다음 공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양치기 공부법을 저는 모든 과목에서 실천했습니다. 강남대성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각 선생님께서 제공해주는 자료 등 수많은 자료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저는 이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어 비문학 파트는 많은 양의 기출 지문들과 고난도 지문들을 수도 없이 직접 읽어보고, 문제를 풀고, 내용 이해 혼자서 해보고, 지문과 문제의 논리 구조 파악해 보는 등 면대면으로 부딪혀보면서 독해 실력을 높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문학은 구조화된 비문학 풀이법 몇 개만 대충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비문학은 누가 지문을 더 많이 읽어봤고 누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봤고, 누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을 더 많이 해봤고, 누가 독해력이 더 좋고,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했는지와 관련된 싸움입니다.

① 국어

국어 문법 파트는 수많은 문제를 풀고 수많은 내용을 읽고 외움으로써 문법 푸는 기계가 되었던 것 같고, 국어 문학 파트도 마찬가지로 EBS 지문 모두 다 공부하고,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추가 자료들까지 다 읽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이번 수능에 유씨삼대륙이 고전소설로 나왔는데, 원작품이 엄청나게 길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다 보니 설마 나오겠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파이널 기간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전체 줄거리를 설명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듣고 넘길 때 저는 판서도 다 받아 적고 수능 전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봤습니다. 공부를 꼼꼼히 해 놓은 결과 수능에 나왔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부분을 저는 지문도 거의 안 읽고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② 수학

수학과 탐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풀이가 거의 전부입니다. 기본 개념만 잘 잡혀 있다면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품으로써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쌓아 문제 푸는 달인이 되어야 할 과목이 수학과 탐구입니다. 흔히 ‘체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학과 탐구 과목 공부는 수업을 통해 기본 개념, 그 개념의 문제예의 적용, 그리고 문제 풀이 스킬을 배우고,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원래 개인적으로 약했던 과목이라 비킬러27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27문제를 맞춰야지 킬러 3문제를 맞추는 게 의미가 있고, 27문제를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킬러를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2750과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계적인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큰 노력을 가했고 작년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다.

③ 탐구

탐구과목의 쉬운 기본 개념 확인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넘어가서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들인 만큼 자다가도 누군가 물어보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히 외웠고, 이에 관련된 문제들도 보자마자 해결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었습니다. 과학탐구의 킬러 문제들은 선생님이나 해설지의 논리와 자료 해석 과정을 여러 번 혼자서 복습한 다음에 혼자서 문제를 다시 몇 번씩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위 과정의 첫 번째 단계, 배운 내용의 복습만 하는 단계만 거치고 이해가 되는 느낌을 받으니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는 하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필기한 내용을 읽어보기만 하는 것과 그 이해한 내용을 기억해내서 문제를 직접 풀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스킬이 체화가 되고 혼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학습팁>

강남대성학원을 다니다 보면 정말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럭저럭 버틸 만하지만, 파이널 기간이 다가올수록 사물함과 책상 서랍과 가방은 수많은 자료로 가득 차게 되고, 아무리 정시에 올인하는 재수생이라 하더라도 모두 감당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버릴 것은 버리되, 반드시 본인이 하기 싫은 공부도 같이 가져가 주어야 합니다. 할 게 많아질수록 사람인지라 편하고 하기 쉬운 것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몇 군데 약점이 생기게 되면 결국 수능 때 핑크가 나게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몸이 잘 발달하듯이 공부도 골고루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우선순위의 1순위는 무조건 강남대성학원을 다니면서 항상 선생님들의 수업복습과 각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숙제와 학원에서 주는 자료였습니다. 강남대성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강남대성학원만이 줄 수 있는 콘텐츠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능을 직업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학원은 학생들의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원이 학생들에게 풀라고 주는 자료는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비싼 수업비 내고 강남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은 안 듣고, 숙제 대신 타 학원의 자료만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바에는 다른 학원이나 독학 재수 학원을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시험이고, 시험을 잘 봐야지 높은 점수를 얻고, 높은 점수를 얻어야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험에서의 고득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수능 시험이라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성공적인 입시는 불가능합니다. 공부를 통해 얻은 실력을 실질적인 점수로 변환시킬 수 있게, 자신만의 시험 플랜을 구축시켜 주는, 소위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 풀이입니다.

시간 안배 능력을 기르고, 문제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순발력을 기르고, 무슨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풀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갖춰놓는 것부터 책상 위의 필기구, 시험지, 그리고 OMR 마킹 종이의 가장 편한 배치가 무엇인지 파악해 놓거나 몰라서 나중에 다시 와야 할 문제는 별 표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체크 표시를 해야 할지 미리 결정해 놓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시험 감각 배양과 유지에 해당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수능 공부 기간의 전반부 절반에서는 기본 개념을 다시 잡고, 여러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주로 보냈고, 후반부 절반에서는 모의고사 풀이를 정말 많이 하면서 시험을 위한 몸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거의 다 구해서 풀었고, 막판에는 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실제 수능처럼 시간 맞춰서 전과목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과목 모의고사를 온종일 수능 시간표대로 푸는 것이 가장 실전에 가깝게 연습하는 방법인 만큼 이런 경험을 최대한 잘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단체로 보는 날들이 특히 중요한데, 주변 친구들과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수능과 가장 근접한 환경에 익숙해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실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 후속 공부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모의고사를 본 날에는 일찍 하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0시까지 남아서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당일 친 시험에 대한 리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시험 점수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를 되돌아보며 무슨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틀렸는지, 시험 시간에는 왜 올바른 풀이를 생각을 못 했는지 등을 곰씹어보며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번에 국어 경제 지문이 어려워 시험을 못 봤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경제를 제일 나중에 풀어야 할지, 오늘 수학 시험처럼 비킬러에서 막히면 몇 분을 막힌 문제에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지 등을 다시 생각해보며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생각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는 새로운 것을 얻는 공부가 아닌 그 동안 쌓아온 지식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것을 해봤자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을 만나게 된다면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는 게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잘 안 외워지는 내용이나 계속 실수하는 유형, 그리고 기타 조심해야 할 내용 등을 정리해온 노트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그 노트를 반복해서 읽거나, 탐구 과목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능팁>

수능 전날에는 더 일찍 자거나 특별한 절차 없이 평소 자던 시간에 자서 수능 날에는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났고, 긴장하지 않기 위해 학원 모의고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수능을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수능은 모의고사처럼'이라는 말이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하는데, 바로 가채점과 마킹입니다. 수능 가채점이랑 OMR 마킹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 수능 장을 나와야지 수능 직후에 자신의 위치가 바로 파악이 되고 이를 토대로 수시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0.1점 차이로 모든 게 갈리는 정시에서 한 문제라도 가채점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마킹을 하게 되면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정말 불안한 상태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 모의고사를 푸실 때 실제 수능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가채점과 마킹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정말 정말정말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가뜩이나 급박한 수능 현장에서 난생처음으로 가채점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다 맞게 풀었는데 마킹 잘못해서 인생이 달린 수능에서 점수 깎이는 것 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가채점이랑 마킹도 문제 풀이처럼 하면 실력이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제발 가채점 종이랑 OMR 용지 인터넷에서 구하셔서 평소에 가채점이랑 마킹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수능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보고 난 뒤라서 너무나도 좋고 한편으로는 피곤하겠지만,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 입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정시 지원과 관련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진학사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작년과 재작년 입시 결과도 분석해보고, 담임선생님과도 상담도 하는 등 애써 얻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지 비로소 행복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 수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직접 재수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인 만큼 제가 드린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참고해 주시면서 강남대성학원과 함께 수능 레이스를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전국 최고의 입시 데이터와 선생님들을 갖추고 있는 강남대성학원은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데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21학년도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